

노 사 합 의 서

주식회사 케이티와 KT노동조합은 115 전보접수 운용 합리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.

1. 서울과 부산 115 전보접수 이원화 운용
가. 서울전신국은 수원/ 대전 115 전보접수 업무 통합 운용
나. 부산 전신과는 전북/ 대구/ 전남 115 전보접수 업무 통합 운용
2. 통합운용에 따른 종사원 재배치
가. 수원/대전/대구/전남 115 전보접수 종사원은 현 소속지사 발령 및 타기관 희망자는 희망기관 발령
나. 부산 전신과 호 접수 종사원은 자체 업무 재배치
3. 115호 접수 업무만 계약직(인력)으로 위탁 운영하며, 호 접수 이외에 발생하는 제반업무(민원처리, 꽃배달리콜, 그외 기타 업무)는 현 정규직이 총괄 처리한다.
또한, 정규직 115분야 영업 판촉팀을 별도 구성 운영한다.
4. 통합되는 수원/대전/대구/전남 115 전보접수 계약직 고용안정을 위해 110, 100번센터 등 희망자에 한하여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5. 통합 운용의 안정을 위해 노·사는 사전 불안요소를 점검하여 개선토록 노력한다.

2003년 4월 29일

주식회사 케이티

인력관리실장 박 균 철



KT노동조합

사무처장 양 정 우

